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익산 승림사, 제5차 중창불사 회향

익산 합라산 승림사(주지 지광)가 수행과 교육, 포교를 아우르는 전통 문화체험 공간으로 거듭났다. 10여 년의 중창불사를 마친 승림사는 청소년, 다문화가족, 도시와 농촌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승림사는 4월 10일 지난 10년간의 불사를 회향하는 '제5차 중창불사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 심곡사 화평 스님, 김진수 전북교과사단장, 박중근 익산신도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승림사 중창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지광 스님은 "승림사가 올해 불교 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됐다"며 "최소한 한문교실, 다문화



승림사가 10년간의 중창불사를 마치고 4월 10일 회향법회를 열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중창불사는 보물 825호 보광전과 적묵당 등 20여 전각을 해체 보수했다.

가정을 위한 쉼터 역할 뿐만 아니라 승전 불루베리 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해 종교간, 도시와 농촌 간 화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그동안 불사와 가람 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광 스님을 비롯한 승림사 사부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월주 스님은 "불자로서 건성성불, 포교·전법, 가람수호의 본

분을 잊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임문규 신도회장 등 불사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시상됐다. 또 익산시 합라면에 거주하는 김재석, 판티밍팅 부부 등 6가구의 다문화 가정에 격려금과 불교 경구가 새겨진 액자를 선물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불사에는 승림사 사부대중의 노력이 컸다. 이번 불사에는 보물825호 보광전 해체보수 및 벽화 보전처리, 템플스테이 전용관 적묵당 수리까지 크고 작은 불사 20여건이 진행됐다. 가람 중창불사에는 국고 보조비 29억 7000만원과 신도들의 시주금 8억 5000여 만 원까지 38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다문화지원 본격화

광주지역 불교계가 다문화가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광사(주지 정선)는 4월 10일 광주 동구 학동에 '해 뜨는 다문화 가족복지센터' 개소식을 갖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2월에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해 뜨는 다문화가족복지센터는 상담실, 다도·한국어·전통악기 교육, 부모교육 등이 진행된다.

3월에는 본지 후원으로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아시아밖음공동체(대표 조제스님, 김상사 주지)와 공동으로 다문화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소식에는 해월 스님(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상운 스



'해 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는 10일 문을 열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님(홍릉사 주지) 등 30여 행사관계자가 참여했다.

정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따스한 자비의 손길이 되며, 화합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개최

호남지역불자들에게 불교의 다양한 산업을 알리기는 국제불교박람회 개최됐다.

(주)엑스퍼트는 광주불교방송과 공동으로 4월 15~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0 국제불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15일 개막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 등 500여 사부대중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영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박람회가 호남불교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불교의 다양성을 일반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불교용품을 비롯해 100여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불교상품과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백양사와 송광사 등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가 각 부스를 설치해 템플스테이와 사찰행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선운사 조사전 낙성식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4월 13일 석전 영호 대종사 열반 61주기를 맞아 역대 조사스님들의 진영을 모신 조사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조사전 낙성식에는 선운사 창건주 겸단 스님을 비롯해 의운·설파·백파·경대·환응·석전 스님의 진영도 함께 봉안됐다.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백파연구소 개원, 석전 스님의 독립유공자 지정 추진,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 복지법인 설립 등 수행과 복지 문화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낙성식에는 월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석전 문도회 재근·재덕·해산·범여·범현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 참석했다.

봉선사 조실 범만 스님은 조사전 낙성에 공로가 큰 상봉 스님, 전경복 거사, 이복화 보살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통불교의식 교육장 개설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제14대 원장 호산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전남지역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주지)은 3월 27일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 제14대 원장에 취임했다. 스님은 140여 사찰로 구성된 태고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총무원 원장 소임을 4년간 맡게 됐다.

호산 스님은 "사찰 주지스님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총무원의 발전의 관건"이라며 "모든 총무원행정에 화합에 중점을 두고 펼쳐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총무원부터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총무원정령을 펼칠 계획이다.

호산 스님은 "총무원은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각 사찰의 스님들을 직접 찾아가 총무원 발전과 참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운천사 전통불교의식 교육장 개설, 역대 총무원장

스님 합동 다례재 봉행, 연수교육 실시, 운천사 전통사찰 지정 추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통불교의식 교육장은 스님들이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의식을 비롯해 상공의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의 다례재를 연 1회 봉행하고, 1980년대 없어졌던 총무원 연수교육을 다시 시작해 사찰별 포교비밀 교육에도 힘

쓴다. 현재 총무원 회원들의 참여율 재고도 호산 스님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현재 총무원에는 태고종의 광주전남지역 사찰 65%가 회원 사찰로 참여 중이지만 회원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호산 스님은 "총무원이 사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회원사찰이 총무원과 공감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회원사찰의 80% 이상을 총무원정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산 스님은 1965년 전남 대흥사에서 상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완도 수항사, 해운사 주지와 총무원 재무국장, 사정원장을 비롯해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곡성 무각사 주지와 광주전통불교영산회 교문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승·차·동백·음악이 어우러진 자리

백련사 다례문화제

아름다운 절 백련사 동백숲에서 그윽한 차향기와 음악이 어우러졌다.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가 4월 10일 '2010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백련사 다례문화제는 고려 후기 기술이려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 백련결사를 맺었던 팔국사 스님들의 뜻을 기리는 제례의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음악회 사회자로 현직 목사를 초청하는 등 전통제례의식에 생명과 평화,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0일 오전 백련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팔국사 위패가 봉안된 대웅전 옆 명부전에서 전통사찰의식인 다례제가 거행됐다.

또 백련사 앞 동백숲(천연기념물 제151호) 부도밭에서 차를 마시고 다식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들차회'도 열렸다. 이어 저녁에는 동백숲 부도전에서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주제로 숲속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번 숲속음악회에는 최명진(미래에서은교회 목사)씨의 사회로 가수 홍순관씨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 늦봄학



4월 10일 팔국사 다례문화제에 모인 200여 사부대중이 고려 후기 나라를 위해 애쓴 스님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교 보컬팀의 공연, 김세화씨의 색소폰 연주, 권영윤씨의 풀잎피리 공연 등이 펼쳐졌다.

주지 여연 스님은 "강진은 백련사의 팔국사와 김영랑 시인, 단산 등 문화콘텐츠가 풍부하다. 앞으로 팔국사 다례제가 강진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8일부터 만경루에서는 이호신, 박정호, 송필용씨가 백련사를 그린 작품과 대웅보전 벽화를 담은 그림과 사진을 전시하는 '천년의 숨결전'이 25일까지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무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 나누어 저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상용선(법륜대)기수
■재질: 순금(불멸연료)
■재: 질(이완)국상청자
■높: 41.10cm
■중량: 45kg
■발판: 33cm
■무게: 2kg